

목사 된 가수 조하문 2년만에 공연무대



목회자로 인생의 진로를 바꾼 가수 조하문(49)이 2년 만에 공연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조하문은 21일 오후 6시20분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새빛맹인재활원에서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자선콘서트 무대에 섰다.

전남도교육청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21일 나주초등학교에서 중부지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를 실시했다.

'산학협력 유통대학' 가을학기 졸업식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상환)와 송원대학(학장 위성동)은 21일 송원대학 학생회관에서 산학협력 유통대학 가을학기 졸업식을 갖고 36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사랑의 헌혈'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21일 1층 정문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모인 100여명의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동문회

▲광주남중 21회(회장 김영희)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주월동 국제호텔 위 흥여명가. 062-676-3883. ▲광주 북성중 22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동해회집. 062-515-8808.

월례회=28일(목) 오후 7시 등촌. 062-373-1566. ▲광주 북성중 8회(회장 백남태) 정기총회=29일(금) 낮 12시30분 광광동 호반상장. 오전 10시30분 농성동 상록회관. 011-609-5853.

종친회

▲고세 광주 중문회(회장 고석태) 이사회=21일(목) 오후 6시30분 총장로 5가 전자북(엔터시네마 7층). 총무 018-643-9200. ▲흥덕장제 송광회(회장 장동환) 월례회=24일(일) 오후 7시 중흥동 제니엘 회의실. 010-5522-9700.

규)=26일(화) 오전 10시30분. 011-9473-3719(사무국장 김윤호). ▲동래정제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현영) 이사회=29일(금)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87.

향우회

▲재광 고마 향우회=23일(토) 오후 7시 광산구 운남동 문가네식당. 총무 김기석 011-635-7620.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금) 오후 6시30분 계림동 금수장호텔. 010-3624-0030.

모임

▲재광 순천중·고등학교 테니스 월례대회=23(토) 오후 3시30분 임동 일선방직코트. 016-652-8040(김대균).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모임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흡배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형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임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과정 모집=매주 목요일 7시~10시, 긴장해소·토론·프리젠테이션·이미지 등. 010-7304-5665.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임 검정교사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부음

▲김길두씨 별세 성기(개인사) ▲김태욱씨(한나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창훈씨(사무처장)

광주에서 30년 아름다운 정계공민 기적실뎀포특별분양 062-222-0201

광주 지하철에 무료 진료소 개소 동서하나로한방병원 윤경환 원장

"어르신 건강 지킴이 최선 다할게요"

"형편이 어렵고 시간에 쫓겨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으세요." 21일 오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첫 무료 진료에 나선 동서하나로한방병원 윤경환(38) 원장은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민들과 나누기 위해 지하철역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 측은 이동 검진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양 원장은 "무료 진료소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관절·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이다"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성인병과 심장·폐 질환 등에 대해 한 곳에서 양·한방 진료를 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1~4시까지

동서하나로한방병원(구 광주경의한방병원)과 동서하나로병원은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 '무료 진료소'를 열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랑의 의술을 펼친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6~8명의 양·한방 전문 의료진들이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등 50여명을 진료한다. 이들은 침과 부항, 뜸 시술 등 한방진료와 심전도 검사, X-레이 촬영 검사, 혈액·요 검사 등 양방진료도 함께 하고 있다.

침·부항·심전도 검사 등 양·한방 진료

지난해에도 광양시 옥곡명 의원아마를 등 무의촌 농촌마을을 돌며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한 윤 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며 "금남로4가역의 테마가 '사회공헌활동의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사진=고경석기자 ksgo@



여객선 사장의 9년째 '아름다운 여행'

목포 씨월드 이혁영씨, 소년소녀가장 등 300명 초청 제주 여행

한 여객선 사장의 계속되는 '아름다운 여행'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포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62) 사장. 그는 부모가 없어 휴가는 업무도 내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무더운 여름을 보낸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 가족,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300명을 초청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 이 사장은 22일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 중인 국내 최고 시설의 1만7천t급 여객선 컨베리호(씨월드고속훼리 소속)를 타고 1박2일간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한다고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선상일출봉을 시작으로 산굼부리,



마사 쇼, 돌고래 쇼, 소인국 등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여행에는 목포범 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등 모두 15명이 함께 하며 법률 상담을 하고 고충도 해결해 주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된다. 이 사장은 "여행기간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힘이 닿는 한 여행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조선대 김형우씨, 대학발명대회 금상

살균 청소'자동 신발장'으로

"금상까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특허청이 주최한 제7회 전국대학 발명경진대회에서 개인 부문 금상을 차지한 조선대 김형우(27·선박해양공학과 4년)씨의 수상소감이다. 김씨의 출품작은 'RFID와 살균청소를 이용한 자동신발장'이다. 대회에는 전국 71개 대학에서 개인 373개, 팀 260개 등 총 633개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식별)는 IC칩 등을 이용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로 전자머신, 전자인식 열쇠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가정용과 업소용 두 가지 자동신발장을 발명했다.



"신발에 묻은 흙이 집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생각해냈어요. 또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나올 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소용 자동신발장은 RFID가 인식된 신발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배달되는 시스템이다. 신발이 신발장에 있는 동안엔 자외선 살균과 에어 브러시 등을 이용해 자동 청소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로 전자머신, 전자인식 열쇠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가정용과 업소용 두 가지 자동신발장을 발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승진 않고 교사로 41년 아이들과 함께

곡성 중앙초 윤선중 교사

교감 승진을 포기하고 평교사로 퇴임을 맞는 참 스승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곡성 중앙초등학교 윤선중(62) 교사. 오는 31일 41년 6개월의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 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양한 수업 방법 등을 후배 교사들에게 더 전수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 윤 교사가 평교사로 퇴임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지난 2002년. 나주초등학교 근무시절 교감 승진 의견을 갖춰 승진이 가능했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실에 남아 교육 현장을 지켰다. 지난 1960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윤 교사는 청산 중앙초등학교 모북분교 등 10년 동안 섬에서 근무하면서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남권 초등학교에 보급, 복식교육 정착화에 노력해 왔다. 또 방송통신대와 교육대학원에서 늦깎이 영어를 공부해 영어 의사소통능력, 영어 감수 기술 등을 보급해 초등영어교육 발전에 헌신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게 된 윤 교사는 퇴임 후 "초등영어교육연구회와 함께 초등 현장의 영어수업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이석형 함평군수 '혁신' 강연

이석형 함평군수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강사로 나섰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구희근)과 광주지방법원장청 장흥지청(지청장 김창희)은 21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이석형 군수를 초청, '불우오선 전략과 창조경영'이라는 주제로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장흥=김윤기기자 kykim@



오병태 교수, 국립공원 위원에

오병태 호남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9월3일 환경부 장관실에서 열리며 임기는 2년. 오 교수는 국립공원 용도변경과 심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



인사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장 박민수

내방

▲김태욱씨(한나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창훈씨(사무처장)